



이 쌀을
어찌할꼬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쌀 대안 해결, 협동조합 개혁 정책'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벼단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온실 가스 4% 감축 배경과 의미

“미룰수록 손해”... 선제적 투자 개도국 최고 수준... 공격 대응

정부가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개도국 최고 수준인 4%(전망치 대비 30%)로 설정한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기업들의 반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의 저하, 경제성장에도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대통령은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면 목표를 다소 이상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4% 감축안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녹색산업이란 신개척 시장을 선점하려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하며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리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 가운데 최초로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 활로를 열어주려는 목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국력을 높이는 포석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는 발언을 무려 3차례나 했을 만큼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를 개도국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점을 감격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소감을 밝힌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니 실천하는 길이 남았다”면서 “지혜롭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부처 수장들은 이번 조치로 산업계가 다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심인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은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제성장률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국민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구 등과 치열한 경쟁 속에 오늘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최고 수준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세종시 직격탄... 신음하는 지방

1 무안기업도시

“기업 몰아주기...4년 노력 물거품”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파격적인 세계 및 토지공급해택 등을 부여한 ‘기업중심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에도 ‘블랙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월한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정부가 직접 나서 ‘세종시 세일즈’를 하겠다는 것인 만큼 자칫 세종시가 해외자본과 국내기업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지 공급가격의 대폭 인하,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세종시 유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 배제와 원형지 개발 허용 등 상당한 수준의 특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비(PF) 조성과 개발사업 참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발사업 위기에까지 내몰린 무안기업도시로써는 ‘얕친 데 얕친 격’으로 완전히 정부의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무안군과 한·중 국제산업단지개발(주)가 국내 출자사로

정부 온갖 특혜 동원 ‘세종시 세일즈’

형평성 잃은 정책...지방 찬밥 전략

참여했던 두산중공업의 출자 포기로 대체 사업자를 찾고 있어서 대체 사업자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05년 기업도시 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4년 가까이 심혈을 기울여 온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기획경영실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밀고 갈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호남권에서는 산업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실 땅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17일 “세종시 입주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적당한 수준’에

서 고려하겠다”면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과도하게 퍼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고려해 세종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혜택이 아닌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계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산단의 경우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자본 유치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 상황이지만, 기업도시 특별법 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비 확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안 한중산단은 지난 1월 개발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자금(PF) 확보를 하지 못해 부지 보상 등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측은 토지 개발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약 8천억 원)의 70%까지 부담할 의

사가 있으니 빨리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최대 공동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각종 혜택은 특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세종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세종시에 ‘특혜’를 주고,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이 무르익은 무안 한중산단의 위기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없이 정부에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어렵게 지역에서 대기업을 외국기업 등으로 전환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역은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적 석학들 ‘바다 녹색성장’ 머리 맞댄다

내일 여수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해양, 환경,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해양 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통한 ‘바다의 녹색성장’(신해양녹색경제·Blue Economy)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19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에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아젠다’를 주제로 제3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제임스 터너(James M. Turner) 미국 상무부 국제담당 부차관보, 파트리시오 버날(Patricio Arturo Bernal)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사무총장, 윌렛 켈튼(willett Kempton) 텔라웨어대 무탄소에너지연구원 소장 등 세계적인 해양, 에너지, 환경 분야 석학들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은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한 녹색성장’, ‘신해양 녹색경제(Blue Economy)’, ‘여수세계박람

회 주제 구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각국의 우수한 해양 정책 사례를 수집·전시하는 프로젝트인 OCBPA(Ocean & Coast Best Practice Area)의 실현을 위해 쉐리엔성 상해박람회 UBPA(Urban Best Practice Area)담당자가 참여해 국제사회의 해양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19일 개최식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황규연 해양전시건설본부장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임스 터너 미국 상무부 국제담당 차관보가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여수세계박람회’가 제시하는 녹색성장 모델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파트리시오 버날 IOC 사무총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은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의 구현-우수 해양·연안정책, 여수선언·여수프로젝트’가 주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
5분만 측정해도 심박수 측정기 HeartPlus ACID-1800E
소용돌이치는 생활속에서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기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

nanom
나노메치